세계문학과 번역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본 한국문학의 오늘*

정명교**

1. 문화 교섭의 방정식
2. 번역의 두 가지 축
3. 번역의 기능과 의미
4. '번역하다'로부터 '번역되다'로 가는 한국문학 - 여성시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문학이 자국어문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구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 속에서 한국문학이 자신의 독자성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세계문학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일이 여하히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문학이 한국어라는 한국인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통해 생장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문학과 한국의 문학인들이 한국어라는 매체를 포기할 수 없다

* 이 논문은, 'The 2013 Rutgers-IACKS Conference'(2013년 4월 23일, Rutgers University Inn and Conference Center)에서 발표한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s World Literature"와 같은 날 저녁의 'An Evening with Korean Women Poets'(Rutgers University, Teleconference Center)에서 발표한 "Korean literature: From 'translating' to 'translated' - The case of women's poetry"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면 세계문학과의 소통을 위해 별도의 중개 장치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번역'이라는 것을 한국의 문학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선구적인 번역가들이 출현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 후 '번역을 통한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가장 보편적인 공식으로 받아들여져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되었다. 그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내, 한국문학의 공간을 세계문학의 지형 내에 조성하는 데에 얼마간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성공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 번역 작업의 경과를 살피는 한편, 번역이라는 활동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이 번역 작업에 부응할 만한 현 단계 한국문학의 문학적 성취와 그 의의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고는 그러한 성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역'은 단순히 주변국의 정신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의 전 시대에 걸쳐 문학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교류의 핵심적 방법으로 기능해온 보편적 기제임을 확인하고, 번역의 궁극적인 의의는 이질적인 두 정신 세계의 교섭과 더 큰 새로운 정신 세계의 창출임을 인지하여,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 수준의 번역은 '직역'도 '의역'도 아니라 '문자 대 문자'의 텍스트 수준에서의 통째 번역이라는 것을 추론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의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출발어 문학과 도착어 문학 사이의 '호환성'의 정도가 최고도로 증대되어야 하며, 그것은 결국 번역의 정확성의 차원을 넘어 출발어 세계와 도착어 세계 사이의 정신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출발어 문학의 사유의 깊이와 사유의 변별성을 요구한다. 필자는 두 여성시인의 시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러한 사유적 수준과 변별성의 양태를 살피는 것으로 이 논문을 메지대었다.

주제어: 번역,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세계문학, 김승희, 김혜순, 한국여성문학

1. 문화 교섭의 방정식

"번역은 존중과 경쟁의 표지이다.[1)]"

한 중세 연구자의 이 정의는 번역의 정치학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로마제국의 퇴각 이후 유럽의 지식인들이 라틴문화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문학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부닥쳤던 문제는 라틴문학의 위대한 유산을 무시하고는 독자적인 문학의 고급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그리스·로마시대보다 더 위대한 문학을 건설해야 한다는 책무였다. 그때 유럽인들은 라틴문화를 폐기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숭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라틴문화로부터 남겨진 모든 것을 자신의 문화를 살찌우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았으며, 라틴문화의 저작과 소화를 통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정신적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하였고, 그러한 자기세계의 정립을 통해 저 범례적 인간 원형의 정신세계와 경쟁하려고 하였다. 샤를르마뉴 대제의 정신적 참모였던 알켕(Alcuin)이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에 [……] 옛날의 아테네보다 더 우월한 아테네를 세울 것"을 권유하면서, "저 시절의 아테네는 플라톤의 원리만을 배워 7개 학예로 빛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있어서 [그것을] 의연히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나아가 성신의 일곱 가지 선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2)]"라고 한 도전적인 발언은 바로 그러한 유럽인의 복합적인 자세로부터 솟아난 것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생장한 서양문화 및 문학은, 19세기 이래, 그 밖의 전 세계의 정신세계로 흘러들어갔다. 제국주의의 물리력에 의한 것이든, 혹은 그 세계가 창출해낸 '모더니티'의 압도적인 매혹에 의한 것이든, 전

---

1) Jacqueline Jenkins & Olivier Bertrand, *The Medieval Translator, Traduire au Moyen Age*, Turnhout, Belgium: Brepols, 2007, *xx*.

2) Etienne Gilson, *La philosophie au Moyen Age*, Paris: Payot, 1986, p.193에서 재인용.

세계의 정신문화는 서양적인 주형판을 통해 재편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연히 한국문학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갓이 넥타이로 바뀌었듯, 근대 이전에 한반도에서 통용되던 언어문화는, 서양문학과 그 개념의 수입과 더불어, 일단 도태의 운명을 겪었다가, '시', '소설', '희곡' 등의 서양적 문학틀 안에 재수용되었다. '향가'와 '가사'는 '시가'의 갈래들이 되었고, '시조'는 '시'의 조선적 현상이 되었다. 정신적·문화적 환경의 수준에서 광범위한 '번역'이 일어났던 것이다[3]. 하지만 이런 사정을 두고, 오로지 제국주의적 작용, 즉 서양적 문화 및 사유 양식의 '이식(transplantation)'이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편향되었거나 순진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될 것이다. 번역은, 어느 중국연구가의 표현의 빌리자면, "최소한의 개입이지만 그러나 결코 순진하지 않은 작용[4]"으로서, 저 중세의 서양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양태로, 수용과 경쟁의 이중적 태도의 길항과 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번역의 두 가지 축

두루 알다시피 이러한 정신적 환경으로서의 번역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 운동이 동아시아에서의 서양 개념어의 한자어 정착을 결정짓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정착은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자를 대표적 공용문자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 힘입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공용문자가 각국의 생활어에 근거한 문자로, 그러니까, 조선의 경우 1894

3) 임화의 그 유명한 "동양의 근대문학사는 사실 서구문학의 수입과 이식의 역사다"(임화, 「개설신문학사」, 임규찬·한일진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18쪽)라는 진술에 압축되어 있는 '이식문학사론'은 이 사정을 가리킨다. 또한 김태준은 『조선한문학사』(한성도서주식회사, 1931)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에는 '세익스피어'와 '싱클레어'와 같은 문인도 없었고, 『파라다이스 로스트』와 『파우스트』와 같은 작품도 없어 그 문단은 낙엽의 가을과 같이 소조(蕭條)하고 눈 나리는 겨울밤 같이 적막하였다"라고 쓴 바 있다. 서양문학의 항목들이 바로 조선의 언어문화에서 문학을 골라내는 '체'로 작용하고 있었다.

4) François Jullien, "Le plus long détour", *Communications No. 43*, 1986, p.88.

년 갑오개혁을 통해 한글로 바뀐 경우에도 한자어의 개념들은 거의 변형 없이 수용되었다. 그럼으로써 한자화된 서양개념 → 서양개념의 자국문자화라는 과정이 별다른 장애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번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한다. 즉, 번역의 주체는 출발 쪽이거나 도착 쪽이거나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상황적 차원에서는 서양적 정신문화의 내용과 양식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질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낯선 것의 침투를 소화해낼만한 수용자의 수용체가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는 바로 그러한 질료적 차원에서의 튼튼한 수용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 그러한 한자의 내구성은 다행스럽게도 한글에게까지도 이어졌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하의 피식민지의 지식인들과 해방 이후 국가기관이 정신적 독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한글을 삼고 대대적인 문맹퇴치 운동[5]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한 운동에 한글의 '배우기 쉽다'는 특성이 보태져서, "광복 직후 78%"이던 "남한 지역의" "12살 이상 전체 인구" "문맹률"은 "1948년 정부 수립 시 약 41.3%"로 낮아졌고, 1958년엔 "4.1%[6]"로 격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글'이 주체성의 의지가 유별나게 집중된 장소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글은 한국인의 실질적인 생활어로 자리잡았으며 더 나아가 한국인의 사유어이자 동시에 표현어가 되었다. 즉 한국인의 경험과 인식과 동경이 한글 안에 농축되었던 것이다. 한국사 최초로 민중의 봉기에 의해서 정권이 뒤바뀌는 경험을 치러낸 4.19세대가 "한국어로 사유하고 한국어로 글을 쓴 세대", 따라서 "사유와 표현의 괴리"를 느끼지 않은 세대라는 김현의 지적[7]은 경험과 사유와 표현의 통일적 매개체가 인간 행동의 결정적인

5)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문맹퇴치'운동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2. 근대, 민족운동의 전개』, 탐구당, 1981, 56-58쪽 참조.

6) 해방 이후, 문맹률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글이 걸어 온 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business.do 참조.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히 가리키고 있다. 아니 차라리 한국어는 한국문학의 혈맥을 흐르는 피 그 자체였다고 비유하는 게 나으리라. 한국인의 경험과 사유와 표현이 지속적인 진화 과정에 놓일 수 있도록 한결같은 에너지를 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사유와 표현이 그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니 말이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의 문학은 그렇게 자국어문자의 보호 아래 진화하였다. 한국문학은 한국어의 고유한 질감을 살린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현실과의 고도의 긴장 속에, 한국적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내세운 국가권력에 대해 인간의 자유와 만민 평등의 보편적 가치로서 저항하는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현실 비판과 성찰의 '공공영역(public sphere)'으로 기능하였다. 한국문학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마침내 민주화의 길에 들어섰을 때까지, 그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문화적 상징과 범례와 표지들을 제공하였다.

서양으로부터의 도래한 새로운 '존재양식(mode of existence)', 즉 '모더니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문학은, 모더니티의 세목들을 한국어문자의 매개를 통해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근대 문학의 한국적 변이태로서, 한국어로만 이룰 수 있는 언어미학, 그리고 비판적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이념형을 빚어내었다. 그 세 미학적·정치적 지향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또한 때로는 상호삼투하기도 하면서도, 뚜렷이 자율적인 한국문학의 세 가지 길을 열어 나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곧바로 세계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으며 한국문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한국문학은 한반도의 경계 내에서의 자족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세계문학의 구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문학이 지금까지 서양문학의 근본 요소들

7) 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보이지 않는 역사 전망』, 김현문학전집 제7권, 문학과지성사, 1992, 240쪽.

을 자신의 언어 내부로 번역해내는 과정 속에 한국문학 고유의 정신적·미학적 세계를 가꾸어 왔다면 이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바로 이때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튼튼한 버팀목이자 혈액으로서 기능했던 한국어는 역설적이게도 장애물로 바뀌게 된다. 한국어는 세계의 다른 언어들, 특히 세계어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힘 센 언어들과 어떤 호환성(compatibility)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어를 공용어로 가지고 있었던 제 3세계의 여타 국가들, 즉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일랜드의 문학들과 한국문학이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1980년대까지는 아주 미약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G20에까지 포함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 즈음에서도 한국어 사용의 환경은 외국인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것이 현실이다. 동아시아 3개국 중에 한국문학만이 특별히 몰이해의 커튼에 가려져 있는 까닭이다.

요컨대 상황적 차원에서 한국문학은 이제 세계문학의 구도 안에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질료적 차원에서는 그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외의 정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문화들의 생장과 융합이라는 문화의 세계적 판에 있어서, 문화교섭의 이상적 환경에서는 출발이든 도착이든 어느 포스트를 특정한 문화집단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출발 쪽에서는 상황적 환경이 결정적 심급(l'instance déterminant)을 가지는 반면 도착 쪽에서는 질료적 환경이 그러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생각을 좀 더 진전시켜 그레마스가 근본적인 두 인간 활동을 생산(production)과 소통(communication)으로 나누었던 데 비추어[8], 출발 쪽에서는 소통이 도착 쪽에서는 생산[9]이 결정적 심급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8) A.J. Greimas et J. Courtès, *Sémiotique −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9, p.294.

3. 번역의 기능과 의미

이런 구별을 진부하고 수사적이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문학에 있어서, 이 구별은 쓰디쓴 현실이다. '세계문학의 구도 내에서의 한국문학'이라는 판을 놓고 볼 때 한국문학에게 결여된 것은 저 질료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학인들이 이러한 결핍을 자각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 노력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소설가 최윤과 번역가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를 비롯한 몇몇 작가 및 번역가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열려나가는 길에 '번역'이라는 매개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적어도 유럽 쪽에서는 그러한 판단은 일정한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문열의 「금시조」,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문학과도 다른 또 하나의 동아시아 문학 특유의 정신세계가 유럽의 문인들과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오늘날 황석영의 『손님』과 이승우의 『생의 이면』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에 대한 '환대'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에서, 기형도, 황지우, 김혜순 등의 시가 내장한 은유적 활력은, 미니멀리즘의 사소성에 파묻혀 있는 유럽 시의 미지근한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유럽, 특히 프랑스의 수용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문학을 중점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점증하였고 더 나아가 아예 한국문학만을 출판하는 곳까지 지난 해에 설립되었다[10]는 것은 한국문학의 수용자층이 안정적인 인구를 형성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후자의 출판사는 한국문학을 알리는 별도의 웹진[11]을 개설하여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소개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한국문학 수용인구의 일정한 확보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

9) 언어 활동에 한할 때, 그레마스는 production을 '의미부여(signification)'라는 용어로 대체하곤 했다.

10) Decrescenzo éditeurs. 프랑스의 Aix-en-Provence에 소재해 있다.

11) http://www.keulmadang.com/

영미권에서의 한국문학의 수용방식은 유럽 쪽처럼 일상적이라기보다 센세이셔날한 반응을 목표로 한 기획 중심이거나 연구자 집단 중심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한국문학의 문제는 보통의 독자들이 마을의 서점에서 한국문학작품을 손에 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문학의 수용은 실질적으로 연구자 중심의 수용에 지배되어 역사주의적 해석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하튼 '번역'이라는 매개 장치를 경유하는 이 방식은 아마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자율성과 한국어의 독자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한국인들 내부에서 세계어를 창작의 매체로 쓰게 될 환경을 조성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과점하고 있는 '세계어'들의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예상에 비추어 본다면[12], 한국어가 세계어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난망할 것이다. 다만 세계어의 상용화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계어를 자유롭게 다루는 세대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어 상용인구의 증가는 한국어와 세계어의 호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12) David Graddol이 쓴 "The Future of Language"(*Science*, v.303, 27 February 2004)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의 6천여개의 언어 중 네이티브 스피커의 수로 '탑 텐'에 들어가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영어, 힌두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루투갈어, 러시아어, 벵갈어, 일본어, 독일어"(1995년 통계). 2050년에도, 순위상의 변동은 있겠으나, 이 몇 소수 언어의 과두적 지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중국어, 힌두어,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벵갈어, 러시아어, 일본어, 말레이시아어"의 순이다. (말레이시아 어가 독일어를 밀어내리라는 게 특이사항이다.) 물론 '네이티브 스피커'의 수가 세계어의 위상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어의 압도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표적인 세계어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영어이다. 세계어를 이루는 조건은 국제정치적 위상과 주요 사회 활동에서의 언어사용 인구이다. 특히 문학의 경우, 세계어의 조건은 해당언어의 책을 읽거나 그 언어로 말하고 글을 쓰며, 더 나아가 그 언어의 책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지적 독자의 인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불어권 아프리카의 작가들이 공식적 자국어를 버리고 불어로 글을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좀 더 넓혀 말하면, 이런 방식의 언어사용 인구는 그 언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세계어를 이루는 조건은 해당 언어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사회·문화적 영향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문명의 발달은 언어를 어휘와 통사로 이루어진 논리적 연결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빅 데이터"의 "덩어리들(corpus)[13]"로 존재하게 한다. 데이터화 된다는 것은 원료화 된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이다. 즉 언어가 본래의 구성적 형식을 잃어버리고 자유롭게 분리되고 접합되며 이동하는 기호적 재료들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질적인 언어들 사이의 매우 혼란스러운 뒤섞임의 양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다만 우리가 각 언어의 본래적 구조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언어의 재료화는 오히려 이질적 언어들 사이의 호환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자국어(local language)와 세계어를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언어의 지적·미학적 가능성을 여는 데 기여할 문인들 역시 적지 아니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가 될지 지금 예상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했듯이 한국어 자체의 내구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계어와의 호환 가능성 혹은 언어 상용의 세계어로의 이전이 쉽사리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어와 30% 이상의 문맹율에 처해 있는 마그레브어(l'arab maghrébien)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번역'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도시에 도달하기 위한 유용한 열차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유용함만을 볼 것인가? 오히려 거기에는 언어 행위의 특정한 미학적 존재 양식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모두(冒頭)에서 번역 행위가 '존중과 경쟁'의 이중적 태도로 이루어짐을 말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중적 태도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맞물린) 태도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의 의지가 빠진 존중은 맹종이 될 것이고 존중의 윤리가 없는 경쟁은 왜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중 이전에 경쟁이 있을 것이고 존중이 경쟁을 추동했을 것이다.

우리가 번역에서 '유용성'을 본다는 것은 두 언어 사이의 근본적인 호

13) Ibid.

환 불가능성(incompatibility)을 전제로 한다. 즉 결코 동일화될 수 없는 것을 '번역'을 통해서 가까스로 유사하게 일치시켜 어렴풋하게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번역의 유용함이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어법으로 우리는 이러한 '호환불가능성'을 '번역불가능성(l'intraduisible)[14]'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볼 때, 번역의 유용성은 번역불가능성에 근거한다. 즉 아무리 번역을 해도 결코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어휘, 문장, 분위기, 리듬, 정서, 의미, 태도, 기타 등등 언어의 '현존'에 관여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번역의 과정 속에는, 이 현존의 차원에서, 호환 가능한 부분(the compatible)과 환원 불가능한 부분(the irreducible)이 동시에 발생한다. 번역행위를 완수하려면 불가피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존중과 경쟁의 연쇄, 역시 번역불가능성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호간의 근본적인 이질성을 전제로 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호환가능성의 최대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번역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폴 리쾨르는 중국어를 서양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부딪쳐, "비교항들의 구축[15]"에 힘을 쏟은 프랑수아 줄리엥(François Jullien)과 '직역'을 거부하는 앙트완느 베르망(Antoine Berman) 그리고 성서의 번역에서 '의역'을 거부한 메쇼닉(Henri Meschonnic)의 저작을 두루 검토하면서, 번역은 '단어 대 단어(mot à mot')로 번역하는 것도, 핵심 의미만을 떼어서

14) 프랑스어 l'intraduisible에 대응하는 개념어로서의 영어는 untranslatability이다. 그러나 이는 유수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번역관련 지식인들 사이의 은어에 가깝다. 아마도 영어가 세계어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 상용자는 '번역'에 대한 의식이 다른 언어 상용자에 비해 희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자의 말이 아니라, 미국의 한 번역가의 발언이다: "Because English is currently the dominant interlanguage of the world, English speakers who aren't involved in translation have a harder time than most others in understanding what translation is." Davide Bellos, *Is That a Fish in Your Ear? – Translation and the Meaning of Everything*, New York: Faber & Faber, 2012, p.4.

15) Paul Ricoeur,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2004, p.63.

번역하는 것도 아니라, 즉 축자역도 의역도 아니라, "글 대 글(lettre à lettre)"로 통째로 옮기는 것[16]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글 대 글"로 통째로 옮긴다는 것은 출발어의 뜻(meaning)과 소리와 그 의미-소리의 합성체로서의 기호가 그 기호가 발성된 맥락에서 작용하는 의미(signification)와 정서와 세계에 대한 태도 일체를 통째로 도착어의 문자로 옮긴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즉 번역가와 작가와 독자와 출판자는 두 언어의 이질성을 인식하고 두 언어의 호환에 대한 뜨거운 기대로 달아오르며 궁극적인 환원불가능성을 절감하게 된다[17].

번역의 자리는 그러니까 두 언어의 어긋남과 두 언어의 일치에 대한 기대가 가장 '의식적인' 수준에서 부각되는 자리이다. '의식적'이라는 것

16) Ibid, p.69.

17) 번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모레티, 카사노바, 댐로쉬의 견해를 참조"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 이론가들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논의가 이 논문이 의도하고 있는 실천적인 효과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모레티의 '서사시'로서의 세계문학 개념은 물론이고, 카사노바의 세계문학 개념도 한국문학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얘기해주는 바가 없다. 실로 2000년 9월 27일, 대산문화재단이 주최한 '2000 서울 국제문화포럼: 경계를 넘어 글쓰기'에서 발표를 맡았던 파스칼 카사노바는 그를 유명하게 해준 저서,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Paris: Seuil, 1999)에 근거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한국문인들에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엉뚱한 충고이다(.아일랜드 문학과 한국문학의 차이에 대해서는 졸고, 「세계어, 세계문학의 출현과 한국어, 한국문학의 생존」 [정영미 편, 『근원과 풍경에 대한 사유』,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을 참조.) 따라서 필자는 그들을 참조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엉뚱한 주문을 한 사람의 좁은 시야를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제출되었거나 혹은 미국에 알려진 이론들만을 유일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우물의 사고가 한국의 지식계를 지배하고,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무수한 번역과 문학 세계화의 이론이 있는 게 진실이다. 저 엉뚱한 주문자는 필자가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에티엔느 질송으로부터, 앙트완느 베르낭, 프랑수아 쥘리엥에 이르는 이론가들의 글 하나라도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 여하튼 우리가 이 수많은 이론들에서 어떤 것을 참조하고 안하고의 여부는 오로지 논문의 주제와 논의에 대한 관여성이다. 관여성이 없는 글들마저 일일이 거론했다가는 이 논문이 나일강만큼 길어질 것이다.

은 바로 두 언어의 그런 관계상황의 성찰이 모든 삶의 저마다의 자율성을 인식케 하고 그 자율성이 삶의 실존적인 체험으로부터 솟아나면서 동시에 그 실존성 자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그리고 실존성이란 바로 자율적인 개인이 공동체의 삶과 맺는 관계의 구체성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각 삶의 자율성은 폐쇄적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소통의 지평을 열어 놓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정신적 긴장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궁극적으로 "글대 글"의 통째 번역은, 두 문화, 두 사회의 이질성을 뚜렷이 인지케 하며 동시에 소통의 필연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할 것이다.

4. '번역하다'로부터 '번역되다'로 가는 한국문학 – 여성시의 경우[18]

한국문학이 넓은 의미에서 서양문학을 번역해 왔으며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 다시 세계문학의 장 속으로 번역되어야 할 때에 다다랐다는 것은, 그 번역 과정 속에서 한국문학의 고유한 실체와 형식이 확립되어 왔으며 이제 세계문학의 확장에 관여할 만한 실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적어도, 한국문학의 유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계문학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자면, '번역되다'의 통로는 한국문학의 변별성과 호환가능성의 동시성에 있을 것이다. 결코 번

18) 이하의 한국 여성시에 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독자들에게 한국의 여성시를 소개한다는 실용적인 목적 하에 씌어진 것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이 논문의 근본적인 주제,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인 대답을 위한 모색으로서 씌어진 것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정당하게 가능하려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보편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어느 다른 문학과도 구별되는 한국문학만의 특수한 형상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성시는 그 점에 관해 어떤 다른 문학적 실천들에 앞서서 가장 적극적인 대답을 보여주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며, 그것이 여성시에 관한 논의가 이 논문의 마지막 장을 차지하는 까닭을 제공한다.

역될 수 없으면서도, 통째로 옮겨놓아 세계문학의 새 자리를 열어 놓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킬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이것은 한국문학에 관심을 표한 외국 독자들의 오래된 물음이자 한국 문인들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공인된 대답이 나온 적은 없다.

세계문학과의 호환성과 개별문학의 변별성으로 동시에 고려한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보편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어느 다른 문학과도 구별되는 한국문학만의 특수한 형상성을 가져서 세계문학의 확장에 기여하는가? 한국의 여성시는 이러한 물음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시는 한편으로 '일상적 차원에서의 남녀의 동등성과 남/녀의 변별성'이라는 보편적 요구에 실천적으로 부응해 왔는데, 그 실천의 과정은 한국문학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다른 여성문학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시의 경우, 우선 그러한 물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 시인들은 서양적인 것의 대타항으로서 긴 세월동안 개발되어 온 한국적 여성의 이미지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공적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데 비해 사적 공간에서는 고유한 역할이 요구되었었다. 또 19세기말에서 20세기 후반기까지 지속된 한국의 역사적 고난이 많은 남성들을 험난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방황하게 했기 때문에 집을 지키고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 어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그런 전통과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한국의 여성에게는 특별한 이미지가 부여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세속적으로 '여류문학(literature of ladies)'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만들어져서 마치 문학의 공적 무대(남성들이 운영하고 있는)와는 별도의 사적인 여성들만의 리그가 있는 듯이 간주되었으며, 두 무대의 교류를 특별한 문학적 사건으로 여기고자 하는 태도가 미만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론

힘든 현실을 꿋꿋이 버텨내는 여인상으로부터 '집안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인고의 어머니'의 형상이 뚜렷이 구축되었다. 그 형상은 여성의 정신적 가치를 거듭 끌어올리며 대지모신의 이미지로까지 발전하였다. 노라가 되기에는 한국의 여성성에는 아주 많은 보상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는 이러한 한국적 여성성의 신화화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이자[19]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이 집단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집단적으로"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의 나혜석으로부터 1970년대의 오정희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여성의 특수화를 거부하는 문화적 실천들이 지속되었었다는 것을 말한다[20].) 한국의 여성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또 하나의 문화'가 특별한 별외 존재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의 여성의 보편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 고정희 · 최승자와 더불어 김승희 · 김혜순이 있었다.

이 시인들은 종래의 여성성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자각'하고 있었다. "지배 문화의 허위를 진맥하고 지엄한 레디메이드 여성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위반의 문학[21]"라는 발언은 그러한 의도를 아주 명료하게 가리킨다. 그 위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김혜순은 여성 신화의 가장 깊은 심부로부터 시작해 내부를 균열시키는 작업을 보여준다. 그는 「오늘의 이브[22]」에서 이렇게 말한다.

---

19) 이성복의 『남해 금산』(문학과지성사, 1986)은 '인고의 어머니'라는 형상을 한국사회의 치욕성(독재정권의 연장에 조응하는)에 대한 가장 가혹한 증거로 남겼다. 이 시집은 한국인의 여성 신화에 뒷받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신화의 붕괴를 동시에 암시한다.

20) 물론 2013년의 오늘에도 한국에서의 여성성의 신화화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황석영의 『심청』(문학동네, 2003),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Kyung-Sook Shin, *Please Look After Mom*, translated by Chi-Young Kim, NewYork: Vintage Contemporaries Edition, 2011) 이후, 김주영의 『잘가요 엄마』 (문학동네, 2012)가 다시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어머니'를 끌어 올렸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어머니의 이름'으로 수렴되는 여성성에 대한 무의식은 한국 산천에 널려 있는 아카시아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21) 김승희, 「여성시에는 왜 이렇게 광기와 타나토스가 많은 것일까」, 김승희 편, 『남자들은 모른다 – 여성 · 여성성 · 여성문학』, 마음산책, 2001, 7쪽.

22) 김혜순, 「오늘의 이브」, 『우리들의 음화(陰畵)』, 문학과지성사, 1990, 98쪽.

스민다, 뱀이
내 몸 속으로
퍼진다, 스며들어온 뱀이
내 몸 전체로
호구에 던진 잉크병처럼
꺼멓게
처진다, 독이
정수리까지
일용한 마취의 독이
스며 들어온 독이
무겁다, 쇠뭉치처럼

제목으로 미루어 "일용한 마취의 독"이 여성 신화를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우선 화자의 전신에 스며든다. 그 독이 그의 전신에 침투했다는 것은 그가 독의 가장 깊은 곳에 침닉했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김혜순은 바로 이 신화의 핵심에서부터 신화를 무너뜨린다.

[…]쇠뭉치처럼
스며 들어온 독이
나를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한다
금단의 나무 밑으로
그리곤 선이든 악이든
마구 따먹게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신화가 '나'에게 에너지를 부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독을 먹고 자랐는데, 그런데 그 독이 이끄는 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 마구 따먹"는다. 주체성을 학습한 존재가 교사가 시키는 대로 가는 법은 없다. 언제나 교사를 넘어서 간다. 근대의

신화는 모두 그 맹점에 걸린다. 왜 여성 신화가 근대의 신화인가? 남존여비의 사상을 공고화하는 신화가 아니라, 여성을 찬양하고 여성을 북돋는 척하며, 따로 떼어놓기 때문이다.

김혜순의 시의 이러한 내파(implosion)의 방식은 「장엄 부엌[23]」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부엌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독점된 공간이다. 좋은 뜻이 아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부엌엘 얼씬도 않는다는 뜻이다. 부엌의 노동이 고스란히 아내/어머니에게 떠맡겨진다는 것이다. 집안 살림은 전적으로 안사람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부관 속에서 아내/어머니는 이중의 강제 노역에 처해진다. 하나는 봉사(serving)의 노역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caring)의 노역이다. 전자는 아내의 노역이고 후자는 어머니의 노역이다. 그 이중의 노역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이 부엌이다. 이 부엌이 왜 장엄한가? 아내의 노역이 남편에 대한 봉사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노역이 내 자식에 대한 보살핌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은 동료들을 데려 와 술판을 벌이고, 아이는 친구들을 데려 와 피자 파티를 벌인다. 남편을 위하려면 아내는 남편의 직장 동료 · 상사들에게까지 봉사해야 한다. 그래야 남편이 승진하고 월급을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조'라 부른다. 자식을 위하려면 어머니는 제 자식의 급우들과 선생님까지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애가 왕따 당하지 않고 우쭐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며,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치맛바람'이라 부른다. 시의 첫 연은 그러한 한국적 아내/어머니의 사정을 환몽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환몽적인 이미지가 붙은 까닭은 애초에 그러한 아내/어머니의 역할이 신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권력은 아내/어머니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다. 둘째 연에서, 아내/어머니는 "흰 옷 입은 요리사들"인 자신의 분신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수백 개의 도마 위에서 세상의 모든 요리를 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엌 안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몰아치지만, 식탁으로 요리를 내갈 때면 아

23) 김혜순, 「장엄 부엌」, 『한 잔의 붉은 거울』, 문학과지성사, 2004, 100-102쪽.

내/엄마는 우아한 집 주인으로 변신한다. 그러나 이 장엄하고 우아한 무대의 뒤편에는 어머니/아내의 짜증과 피로가 겹쳐 쌓이고 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까스로 참는 아내/어머니의 자발적으로 강요된 인내는 점차 신경증적 공격성으로 바뀌게 된다. 아이가 요청한 "새큼한 별 한 잔"은 "먹구름을 갈아만든 음료에 / 차디찬 별을 띄운" 것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신경증적 공격성은 아주 미약하다. 대신 부엌 바깥의 잔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설거지 거리들로 가득 차서, 점차로 부엌은 쓰레기 하적장으로 변한다. "수많은 숟가락, 젓가락, 손가락, 발가락들의 아우성", 이것이 "장엄한 부엌"의 실체이다. 그러나 이 "숟가락, 젓가락"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 쓰레기 하적장은 단순히 부엌에 그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실로 확대된다. 바로 그곳이 "침 흘리고, 씹고, 핥고, 트림하고, 질겅질겅하고, {……} 쩝쩝하고, 큭하고, 끄르륵하고, 캭!하"는 난장판이다. 마지막 "캭!"하는 소리에서 독자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가 목에 뼈가 걸려 질식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가?

시의 전면은 차별의 공간으로서의 부엌을 폭발시켜 집 전체(지배 질서)의 붕괴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김혜순식 내파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김혜순 시의 내면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나아간다. 방금 본 것처럼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가는 게 한 방향이라면, 내면에서 더 깊은 내면으로 나아가는 게 다른 방향이다. 그 방향은 별도로 들여쓰기(indentation)가 이루어진 연들에서 열린다. 그 더 깊은 내면은 시 무대의 전면적 붕괴 안에서 가뭇없이 사라져 가는 저 '신경증적 공격성'의 미약한 편린에서 태어난다. 그 공격성이 공간 전체의 재앙적 붕괴 앞에서 죽어버린 댓가로 그것은 납작한 먹이로 변한다. 프라이팬의 계란이 된다. 그것이 '달'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독자는 이것이 저 1련의 '달'의 환유적 치환임을 간취할 수 있다. 즉 달이 표상하는 신비화된 아내/어머니의 이미지는 '차가운 별'로 변했다가 프라이팬 안에서 요리 당하는 '계란'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그렇게 줄어드는 대가로 공격성의 에너지는 본래의 몸

에서 이탈하여 그것에 "손톱만한 구멍"을 내고 그로부터 '새떼'를 기어나오게 한다. "기어 나왔다"라는 표현은, 이 새떼가 시 전면부의 총체적 붕괴의 현장에서 '기어 나올' 구더기들의 투영임을 감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떼'는 탈출과 해방의 기미로서 출현하는 게 아니라, 억압당한 소망이 악화되어 부어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새떼'가 "검은 날개를 하늘 가득 펼"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더 깊은 내면 안으로 들어간 곳에서 시인은 외부의 전면적 붕괴에 대한 대칭적 이미지로서 '검은 꿈'을 발견한다. 하지만 검은 꿈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독자는 여전히 이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괴로운 고뇌를 떨치지 못할 것이다.

김혜순의 시적 방법론이 내파에 근거해 있다면 김승희의 그것은 외착(外着)이라는 특이한 형태학을 보여준다. 우선 그의 시적 관심은 여성의 소외된 현실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 태양과 불의 이미지의 화려한 현상학을 펼쳐 보여주었던 시인은 점차로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증가시킨다. 김승희에게 여성적인 것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현실에 대해 취하는 '반작용'의 근거가 된다. 그의 여성성은 그의 삶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즉 그것은 신비화되지도 소외되지도 않은, 독자적인 현실의 일부이다. 현실의 일부이되, 지배적 시선·태도와는 다른 시선·태도이다. 그것은 현실을 "반달리즘 자본의 세월[24]"이라고 파악하고, 그 자본의 반달리즘에 의해 세계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 위기를 미학화하는 사업"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는 시선·태도이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가 이 태도에 여성적인 태도라는 성질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 그것이 개별화되는 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가면을 벗어 조용히 응접실 탁자 위 / 가족사진 옆에 포개어 놓고 / {……}/ 어정쩡한 주부의 직업을 닫고 / 추운 겨울날 / 다리를 건너간 여인[25]"이 있었고, 한국의 여성들은 그 여인의

24) 김승희, 「빨랫줄 위의 산책」, 『냄비는 둥둥』, 창비, 2006, 59-61쪽.
25) 김승희, 「나혜석 콤플렉스」, 『달걀 속의 생』, 문학사상사, 1989, 175-178쪽.

삶에서 자각의 계기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때 여성적인 것은 "다리를 건너가는" 행동으로 집약된다. 여성의 소외(alienation)를 여성적인 것의 외화(externalization)로 치환하는 것, 그럼으로써 여성적인 것을 지배 현실에 대한 안티 테제, 즉 대안적 가능성의 온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태양과 불에 대한 시인의 생래적인 취향은 '심장의 불꽃'으로 변용되어 여성적인 것의 속성으로 들어선다. 이 심장은 생기기는 "달빛 아래 둥근 꽃봉오리"처럼 생기고 "속삭이는" 음성을 가졌으나 "지구에서 태양까지 두 번 갔다 올 거리만큼[26]"을 '하루'에 뛰고, "피를 머금고 수반 위에 꽃피어난 글라디올라스, / 주렁주렁 매어달린 숙명의 측량할 수 없는 홍염"을 일으키며, "110 층에서 떨어지는 여자는 / 꼭두서니 빛 불타오르는 화염으로 치마를 물들이면서 / 너를 사랑했으며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 말하[27]"는 세상에 대한 열정(passion), 그 자체이다. 이 열정이 자본주의의 "캄캄한 현실"에 대한 대안 이미지이다. 시인은 이어서 말한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동업"이라고. 즉 정말 가치있는 일이라고.

물론 이 열정이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 열정은 "못 먹고 못 입고 지지리 궁상인 극빈의 연필심처럼 / 앙상하게 마른 시인이라는 동물이 /자기 손금을 파서 우물을 내고 그 위에 빨랫줄 같은 / 한 그루 몽환의 무지개를 심"어서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 환상은 나혜석이 "행려병자가 되어" "거리에서 죽었"듯이, 또는 예수에게 있어서 열정이 곧 수난[28]이었던 것처럼[29], 언제 좌절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

---

26) 김승희, 「신이 감춰둔 사랑」, 『냄비는 둥둥』, 창비, 2000, 76-77쪽.

27) 김승희, 「110 층에서 떨어지는 여자」, 위의 책, 22-23쪽.

28) passion의 어원은 라틴어 passio로서 '고통(souffrance)'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980년 경"부터 중세의 종교극에서 "예수의 수난(passion du Christ)"을 뜻하게 되었고, 예수의 수난 자체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13세기 중엽에 이르면 "감각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흥분된 감정적 상태나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의된다. - cf. *Le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in http://www.lerobert.com (『로베르 큰 사전 *Le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은 각 단어에 대한 뜻과 용례와 어원의 제시가 정확하고 고전적이며 풍부하다고 인정받는, 가장 권위 있는 프랑스어 사전이다.)

29) 이제 짐작하겠지만, 김승희의 시에는 여성적인 것이 예수 이미지와 은밀히 겹

아슬한 것이다. 그로부터 그의 열정은 "빨랫줄 위를 걷는" 곡예라는 인식과 "나는 필히 골몰하여야 한다[30]", "그대가 하는 일에 나도 참가하게 해다오[31]"와 같은 임무 수행자의 결의 같은 태도가 태어난다.

현실의 대안으로서의 여성적인 것의 제시는 이렇게 해서 현실의 위기에 대한 위태로운 저항이라는 양태로 외착된다. 이 시적 공간에서는 가혹한 것도 위기이고, 뜨거운 것도 위기이다. 때문에 독자의 눈은 때로 시가 내뿜는 열정을 넘어 뜨거움이 유보된 적막한 성찰의 공간에 가 닿는다. 「냄비는 둥둥」은 그러한 성찰이 잘 드러난 시이다. 1련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그런데 1련의 마지막 행에서 시인은 이 혼란의 광경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2련에서 제시되는데, 왜냐하면 시의 화자의 가족의 삶은 그런 소란과 무관한 듯이 "다리 하나 부러진 개다리 밥상"에서 간신히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고, 저 소란스런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행위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온갖 몸부림이다. 시인은 그런 몸부림의 극단적인 두 가지 양태를 무시한 듯 던져 놓아,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난데없는 엄마의 말이 두 극단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 냄비 안에 시래기 국, 푸르른 논과 논두렁들,
> 쌀이 무엇인지 아니? 신의 이빨이란다,
> 인간이 배가 고파 헤맬 때 신이 이빨을 뽑아
> 빈 논에 던져 자란 것이란다,
> 경련하는 밥상, 엄마의 말이 그 경련을 지긋이 누르고 있는
> 조용한 밥상의 시간[32],

쳐져 있다. 물론 이것은 남성적인 것과의 혼재라는 뜻으로 쓴 말이 아니다. 예수에게 남성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성경이 지닌 무게가 김승희의 여성성을 은근히 받치고 있다는 뜻이다.

30) 김승희, 「빨랫줄 위의 산책」, 위의 책, 59-61쪽.
31) 김승희, 「신이 감춰둔 사랑」, 위의 책, 76-77쪽.
32) 김승희, 「냄비는 둥둥」, 위의 책, 18-19쪽.

인간들이 맹렬히 다투는 먹이의 근원이 신의 이빨이라니? 이 말의 의미는, “경련하는 밥상, 엄마의 말이 그 경련을 지긋이 누르고 있는”이라는 구절에 가서야 분명해진다. 즉 우리가 다투는 먹이는, 더 나아가 우리의 이 맹렬한 욕망은 신의 치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치통의 장소 그 자체인 이빨이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솟구치면 그만큼 치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지긋이 눌러야” 하는 것이다.

쌀이 신의 이빨이라는 이야기가 지구상의 어느 신화 혹은 설화에 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시인의 창안일 수도 있다. 매우 낯선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김승희의 시적 구성이 외재적인 것의 부착을 통해서 본체를 반성적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킨다. 여기까지 와서 보면 김승희의 여성성에선 그것이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하여 현실에 작용한다는 점보다, 그 독자성과 현실과의 긴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기능이 더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여성 시인이 한국의 여성시를 전부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성의 신비화라는 한국인의 오래된 집단무의식과의 투쟁 속에서, ‘여성적인 것’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시도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 두 시인은 그런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다. 지금 이 자리는 한국의 여성문학을 종합적으로 조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의 문학이 세계문학의 장 안으로 번역되어 흘러갈 가능성을 탐문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별한 두 시인의 시 세계의 세계문학적 위상을 물어보아야 할 차례가 될 것이다.

> 이 두 여성시인의 시 세계는 자유의 확산과 인간해방 그리고 ‘성평등’의 보편적 대의에 참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어느 문학과도 구별되면서 세계문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에 두 여성 시인의 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그들의 시는 공히 한국적 여성의 독특성(헌신하는 아내, 인고하는 주부)에 대한 깊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그 경험과의 심오한 투쟁을 통해 문학적 성취와 성 평등의 지평의 확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독특한 문학이 세계의 유수한 여성시들과 비교해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보여주면서 여성문학의 세계를 웅숭깊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의 몫은 한국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외국의 문학 연구자들께 우선은 넘겨드리는 게 도리일 것이다. 필자는 세계의 여성시에 과문하여 엄밀히 비교해 볼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 이는 앞으로 필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다만 여성성은 한국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신비화되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은 각별히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여성신화는 중국의 '타이거 맘' 신화와도 다르며, 서양의 오랜 전통 속의 사교의 주도자이며 예술과 지성의 후원자로서의 이미지와도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 신비화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울 만큼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두 시인의 시는 그런 특별한 한국적 정황 속에서, 그 정황과의 투쟁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두 시인의 시가 공히 두 세계의 동시성 혹은 긴장에 특별히 집중하는 것은 그 때문이며, 동시에 이는 한국문학만이 보여주는 특징일 수도 있다. 이런 정황적 특수성이 야기하는 문학적 효과는 체험의 강렬성이 행동이 아니라 성찰의 깊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ellos, Davide. *Is That a Fish in Your Ear? – Translation and the Meaning of Everything,* New York: Faber & Faber, 2012.

Berman, Antoine. *L'épreuve de l'étranger* (coll.: Tel), Paris: Gallimard, 1984.

Gilson, Etienne. *La philosophie au Moyen Age*, Paris: Payot, 1986.

Graddol, David. "The Future of Language", *Science*, v.303, 27 February 2004.

Greimas, A. J., et J. Courtes. *Sémiotique –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9.

Jenkins, Jacqueline., et Olivier Bertrand (Ed). *The Medieval Translator, Traduire au Moyen Age*, Turnhout, Belgium: Brepols, 2007.

Jullien, François. "Le plus long détour", *Communications* No 43, 1986.

Meschonnic, Henri. *Ethique et politique du traduire*, Paris: Editions Verdier, 2007.

Ricoeur, Paul.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2004.

Shin, Kyung-Sook. *Please Look After Mom*, Trans. Chi-Young Kim, New York: Vintage Contemporaries Edition, 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사 22. 근대, 민족운동의 전개』, 탐구당, 1981.

김승희,『냄비는 둥둥』, 창비, 2006.

_____,『달걀 속의 생』, 문학사상사, 1989.

김승희 편,『남자들은 모른다 – 여성·여성성·여성문학』, 마음산책, 2001.

김주영,『잘가요 엄마』, 문학동네, 2012.

김태준,『조선한문학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1.

김 현,『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보이지 않는 역사 전망』김현문학전집 제7권, 문학과지성사, 1992.

김혜순,『우리들의 음화(陰畵)』, 문학과지성사, 1990.

_____,『한 잔의 붉은 거울』, 문학과지성사, 2004.

신경숙,『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이성복,『남해 금산』, 문학과지성사, 1986.

임　화, 임규찬·한일진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정과리, 「세계어, 세계문학의 출현과 한국어, 한국문학의 생존」, 정영미 편, 『근원과 풍경에 대한 사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7.
황석영, 『심청』, 문학동네, 2003.
http://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business.do
http://www.keulmadang.com/
http://www.lerobert.com

〈ABSTRACT〉

Korean Literature Today in the Context of World Literature and Translation

MyeongKyo Jeong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a critical view that the Korean literature now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sphere of World Literature beyond the enclosure of national literature. Is it possible that, in the rapid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Korean literature would be situated in the sphere of World Literature as one of the important constituents of it, maintaining her own originality? The response can't be given easily especially because of the fact the Korean literature has developed in a unique language that only Koreans use as their everyday language.

If Korean writers couldn't and shouldn't give up the Korean language, then they need a separate equipment to communicate with the readers around the world. Many Koreans perceived that this equipment is merely translation. Therefore, since, in the early 1990s, some pioneers translated the important works of Korean Literature into world languages (English, French…), the translation became the almost sole principl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is principle has been proliferated laboriously over 20 years. Fortunately, these endeavors made a good result in a certain degree. Nevertheless this success is simply an early stage and furthermore is limited to Europe.

Therefore,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it is necessary to, while looking over the development of these translations so far, re-inspect the significance

and the possibility of the translation, and inquireinto the accomplishments of the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enough to correspond to the efforts of the translators. Through such reflections, we can confirm that the 'translation' is not the obsession of minor culture but the universal device as core method for all sorts of the spiritual interchanges in all ages of the humanity, recognized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translation is the harmony of the two heteroclite spiritual worlds and the creation of the new culture through the synthesis of two, and inferred that the ideal translation is neither "word[-]for[-]word" translation, nor translation of the core meanings, but "text for text(lettre-à-lettre)" according to the insight of Paul Ricoeur.

These reflections also show that, to arrive in this ideal level of translation,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languages and, in addition to it, between the literatures of both sides must be maximized, and for this that, above the correctness of the translation, both the level and the uniqueness of the thinking, expressions, figures … etc. of the literature of the departure language should be worth to be interchanged with the literatures around the world. In conclusion, we affirmed the coincidence of the Korean Literature with this demand by analyzing the poems of the two contemporary Korean women poets, Kim Seung-hee and Kim Hyesoon.

Keywords :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World Literature, Korean women literature, Kim Seung-Hee, Kim Hyesoon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